

다자녀 혜택 기준 낮춘다



▲ 한국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된다. 사진=shutterstock

한국에서 다자녀 혜택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은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 전환

한국 전역의 주택가격이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16일 '아이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0.05% 하락에서 0.03% 상승으로 전환됐다. 매매가격은 올해 1월 1.49% 하락에서 2월 1.15%, 3월 0.78%, 4월 0.47%, 5월 0.22% 6월 0.05% 하락으로 하락폭이 축소돼 왔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월 각각 0.05%, 0.03% 상승에서 0.15% 상승으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13% 하락에서 0.09% 하락으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0.06%, 단독주택은



▲ 7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0.27% 상승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shutterstock

0.01% 상승했으며 연립주택은 0.10% 내렸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0.27%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의 아파트 가격도 각각 0.26% 상승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4% 하락해 전월(0.16%↓)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12%, 0.10% 상승으로 전환됐고 지방은 0.23% 하락에서 0.16% 하락으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는 0.30% 올랐는데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0.14%, 0.05% 하락했다.

월세도 전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0.05% 하락했는데 전월(0.09%↓)보다는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10% 하락에서 0.03% 하락으로 지방은 0.09% 하락에서 0.06% 하락으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시, 육아휴직 하면 최대 연 240만원 장려금

서울시가 육아휴직 직장인 부모에게 최대 2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1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1인당 최대 1년 120만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급한다. 6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하면 60만원, 1년 연속 육아휴직을 하면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6개월 이하로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장려



▲ 서울시가 육아휴직 직장인 부모에게 최대 2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진=shutterstock

금을 받을 수 없으며, 6개월~1년 사이로 육아휴직을 했다면 6개월치(6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받고,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구다.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장려금 지급에 대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부모 두 명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